



새로운 대한민국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정부는 6월 8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의 토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 4대강 살리기 5대 핵심 과제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기후변화는 현 인류의 가장 큰 숙제다.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이제 보전의 차원을 넘어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는 녹색성장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차대한 프로젝트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시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현재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총 13.0억^m)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홍수조절용량 9.2억^m 확보).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로 20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mg/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며,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할 예정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경안천, 금호강, 갑

천, 미호천, 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할 계획으로 분류뿐 아니라 지류의 수질 개선도 기대된다. 또한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국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수질대책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하천을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체험관광을 활성화하며 산책로와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인프라를 확보하고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

물 확보와 홍수 조절 등을 위해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가 시행하는 사업은 생태하천 사업과 제방 보강, 댐 설치, 농업용저수지 조성, 수질개선 등이다. 또한 섬진강 및 주요 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같은 직접연계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문화, 관광 등 강 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연계사업도 예정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크게 4대강 유입 지방하천 정비(국토해양부), 금수강촌 만들기(농수산식품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문화체육관광부), 신재생에너지, IT산업(지식경제부), 4대강 유역 산림정비(산림청),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소방방재청) 등이다.

■ 사업 계획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16.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질개선을 위해 총 3.9조 원을 투입하여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할 계획이며, 연계사업 소요 사업비는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본사업을 2011년까지, 댐·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발주 하천사업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발주하며, 보 설치 등 중요 구간은 국토부가, 지류하천 사업 등 단순 공사는 지자체가 각각 발주한다. 발주 일정도 기술자 수급 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1차(턴키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키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누어 착공할 계획이다.

“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 추진 방안

4대강 사업의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전체에 대해 보상하여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4대강 주변 65개 시·군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물건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보상에 착수한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조절하며 중장기 판매할 계획으로, 사토는 4대강 인근 국가 산단 및 저지대 농경지 보강 사업 등의 성토재로 사용한다. 또한 사업 완공 후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홍수 예보 등에 IT 기술을 접목한 최신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유지관리 조직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를 시작으로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사후복구' 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5조 원)과 복구비(2.4조 원)를 상당 부분 절감하고,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홍수·가뭄 방지와 수질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며, 수자원 기술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물 관리 선진국' 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